

01 교회소식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임플란트 지원 등 구제에 힘썼다.

02 생명의 말씀

빛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

03 기획특집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 치료를 받지 못한 김신애 권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임플란트 지원으로 해결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04 간증

피난처요, 힘이 되신 하나님~

인생의 풍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낸 김미경 권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역에 활력을 얻은 인도네시아 알레리토 목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66호 2018년 12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 안에서 나누는 사랑, 우리 모두 행복해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임플란트 지원 등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 행사는 여선교회 회원들과 교회 상근 직원들이 사랑의 마음을 모았다.

21일(수), 배추 3,000포기를 각 연합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듬고 씻어 절였다. 22일(목)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절인 배추를 씻고, 싱싱한 채소와 갖은 양념을 버무려 배추 속을 꼼꼼히 넣는 작업이 오후 2시경까지 진행되었다.

그 뒤 완성된 김장김치는 각 박스마다 10~12kg씩 담아 총 1,300박스가 되었고, 교회 내 구제 가정 외에도 신대방 2동 주민센터, 가리봉동 주민센터, 구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구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박찬근 원장은 “만민중앙교회에서 매년 김장김치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 전체가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김치가 세 곳에서 들어오는데 만민중앙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어 잘 보관하여 봄까지 먹습니다”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항상 기도제목 중 하나로 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구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왔다.

이에 구제위원회를 두고 교회 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새터민들의 모임인 주사랑선교회 회원 등 생활이 어려운 1천여 가정에 기본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대방 2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6곳과 복지관

2곳에 매월 쌀 70포대를 전달해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전남 장성군 남면 주민 15명에게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구제위원회를 통한 장학금 수여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각종 레슨비, 학원비, 교통비, 용돈, 긴급자금까지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경조위원회의 장례 절차 지원, 교정복지선교회의 재소자들 섬김, 미용인선교회의 이·미용 봉사 등과 서해안 태안반도 기름방제 작업 봉사 등 다방면으로 주님의 지체와 이웃들을 섬겨왔다.

특히, 올해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도와 지원 속에 연로한 성도들이나 가

정 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 170여 명에게 무료로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3면 참조).

이범수 집사(71세, 중국 1교구)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중한 질병들을 치료받은 것도 감사한데, 쌀과 밀반찬을 지원해 주시고 최근에는 위아래 부분틀니까지 해주셔서 이제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최계순 집사(66세, 3세대 29교구)는 “치아 문제로 10여 년간 고생하다가 5년 전부터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힘이 없고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래 치아가 거의 없어서 사람들에게 민망해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까지 생겼는데 이번에 치료 지원을 받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라며 기뻐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7

빛의 열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 에베소서 5:8~9 -

“ 기쁨과 감사함으로 훈계나 책망을 받아 빛 가운데로 나와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정연하게 바꾸시고,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을 갖게 되고 행복하며 강건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두움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에 그의 자녀들 또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온전히 맺을 수 있을까요?

1.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먼저 ‘착함’이란 ‘선하고 악의가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이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해를 끼치지 않지

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실례를 범치 않는 마음이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규와 질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 외에도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 마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마음, 화평하고 양보하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자랑하거나 들레지 않는 마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등이 ‘착함’에 속하지요.

다음으로, ‘의로움’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의로움이란 이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죄를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나가는 것과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생명 다해 충성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반듯하고 절도 있는 행함,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 옳은 일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는 것 등이 ‘의로움’에 속하지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곧 ‘거짓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거나 입술로 낸 말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진

실함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고 한 번 정한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전의 행함이 변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승해져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불같이 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 버리고 온전한 선의 마음으로 일구어 더욱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진실하여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변치 않고 계속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갈 6:9; 히 3:14). 또한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라도 진실함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착한 사람은 마음에 악의가 없고 아름다워서 행함도 선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 주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다 할지라도 그 행함의 목적이나 결과가 선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남의 돈을 훔치려는 사람이나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다른 사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람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결코 착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의로움, 곧 하나님의 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참이고 옳은지를 분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함과 의로움만 가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 안에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국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령, 수재가 낫을 때에 방송국이나 언론에서 이재민 돕기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간혹 유명 인사나 기업주들 가운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금을 내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면 빛의 열매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선행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진실함이 있어야 참이며, 이렇게 할 때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습니다.

3.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이는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받을 수 있으니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선행과 자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곧 착함의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의로움의 열매라 할 수 있지요. 구제하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변함없이 하였으니 진실함의 열매도 맺힌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빛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삶 자체가 빛의 열매로 가득 찼습니다. 화평함을 좇아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가 하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정도로 평소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마음이 승했지요. 또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머라도 취하지 않으려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선한 마음뿐 아니라 의로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명하시자 미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즉 자신이나 아내가 이미 잉태할 수 없을 정도로 늙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보이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지요(창세기 15:5~6).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어떤 상황에서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실함에 해당됩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원망이나 주저함 없이 그대로 순종했지요(창 22장). 그러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결박한 후 칼을 들어 막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미리 숫양을 예비하신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중심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나 친히 동행해 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부족할 것이 없도록 채워 주셨지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책망 통해 빛으로 나와야

에베소서 5장 11~13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꾸짖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기 위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책망을 통해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여 버리며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고 연단하심으로 더욱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진리에 위배된 것들을 과감히 책망하여 바로 잡아 주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참사랑이지요.

따라서 빛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책망받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며 책망받는 것마다 신속히 돌이켜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책망을 하되 주 안에서 책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로 지적한다 해도 지적하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책망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상대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가 역사하게 되므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지요. 또한 감정이 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니 이러한 책망은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라도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려는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바로 잡아 주고 부족한 것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참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훈계나 책망을 받고 빛 가운데로 나와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콤플렉스가 사라져 시명 감당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김신애 권사 (59세, 3대대 32교구)

제 나이 아직 환갑도 안 되었음에도 풍치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부득불 2년 전에는 아래 어금니 2개만 남기고 치아를 다 뽑게 되었지요. 치과 치료를 계속 하려면 천만 원이 드는데, 가정 형편상 너무 큰 부담이라 그냥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기니 소화도 잘 안 되었고,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할 때도 자주 손으로 입을 가려야 했습니다. 웃으면 영락없이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지요. 특히 교구에서 지역장으로서 심방하거나 모임을 인도할 때, 또 식사 모임이나 전도할 때 민망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연세 드시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의 치과 치료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체계도 기회가 주어져 2018년 6월부터 치료를 시작해 임플란트 6개, 크라운 5개를 하게 되었지요.

첫날 임플란트를 6개 심게 되었는데 마취가 풀리자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한 뒤 ARS(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당회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는 통증이 사라지고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명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을 보며 젊은 나이에 고생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치과 치료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고, 남편과 주위 사람들이 아주 예쁘고 보기 좋다고 말해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과거의 위축되었던 모습이 사라지니 지역장 사명도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을 섬겨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이 너무 좋아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웠고 예술고등학교까지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 꿈을 펼칠 수 없었지요.

결혼 후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93년 4월, 우리 집 계단에 놓인 '만민뉴스' (당시 만민중앙소식)를 발견하였습니다.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저는 '이런 교회라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신문에 나온 지도를 보고 혼자 만민중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영적이면서도 진솔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해 5월에 개최된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때에는 당회장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목도하며 믿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예능위원회 팀들의 특송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2000년에는 당회장님께서 음악 노트를 건네주시는 꿈을 꾸었는데, 때마침 새렘국악선교단에서 제가 가야금을 할 줄 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해 와 입단하게 되었지요.



구제해 주셨지요. 당회장님께서 구제위원회를 통해 매달 보내주시는 구제금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교회의 변함없는 구제가 있었기에 큰 아이를 대학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된 뒤로는 생활이 안정되어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은 정도입니다. 열한 살이 된 둘째 아이도 주안

그 뒤 예배나 행사 때 연주로 영광 돌리니 행복했고,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007년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입덧으로 고생했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입덧이 사라졌고, 2008년 3월에 첫아이 때와는 달리 순산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2009년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데다 갑작스런 일이라 고등학생인 첫째와 생후 18개월 된 둘째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요. 2010년에는 큰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나라에서 나오는 생계지원비마저 끊겼습니다.

이처럼 암담한 상황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는 날마다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새렘국악선교단의 특송에 성도님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곤 하지요.

2018년 8월, 만민하게수련회에서는 10여 년 된 위장병을 치료받아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 잘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영육 간에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싶은데 그 답을 찾지 못하니 사역을 하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영적으로 매우 갈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 궁금한 것이 많았지요.

그런데 2008년 지인을 통해 '2006 뉴욕 연합대성회' CD를 보게 되었는데, 감사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권능의 역사는 매우 강력했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한 '만민뉴스'를 통해 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는 2000년 이후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해외 연합대성회'에서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고, 감사이신



별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제단임을 실감할 수 있었지요. 이후 저는 가족과 함께 매일 밤 GCN방송을 통해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저희 교회도 본받아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가족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는데, 16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도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

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 및 각종 모임에 참석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느끼며 성결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확신 속에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85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485-9143,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특별시 동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8163-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85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485-9143,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특별시 동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8163-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